

# 광주·전남 아파트 매매 상승폭 확대

## 전세값도 ↑...외지인 투기 아파트값 상승 원인 720가구 입주 예정...전월대비 입주경기도 호전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가격이 이례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은 투기 목적의 외지인들이 아파트 매입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08% 상승해 지난주(0.05%)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광주는 가을 이사철인 지난달 0.01~0.04%의 상승률을 기록하다, 11월들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주 외지인 매입 비율은 1월 16.57%, 2월 16.73%, 3월 16.10%, 4월 14.35%, 5월 16.21%, 6월 19.33%, 7월 17.44%, 8월 15.29%, 9월 20.33%로 분석됐다.

광주 전세가격은 0.12% 상승해 지난주(0.11%)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광산구(0.17%)는 수완지구 내 정주여건 양호한 장덕동 위주로, 동구(0.16%)는 소태·월남동 역세권 인근 지역 위주로, 남구(0.13%)는 봉선동 위주로 매매가격과 동반해 상승했다.

전남도 0.12% 올라 지난주(0.08%)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매가격 상승 속에 전세가격 오름폭도 커졌다.

전남도 전세가격도 0.09% 상승해 지난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월 중 광주 입주 예정 물량은 2개 단지 227가구, 전남은 1개 단지 493가구로 총 720가구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2020년 11월 입주경기실사지수(HOSI)'에 따르면 11월 중 광주·전남지역 입주경기는 전월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기준치를 밑돈 70~80선에 머물며 부정적 인식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안연은 "가을 이사철에 임대차2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전세수급 차질, 입주물량 감소로 일부 지역의 입주경기전망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으로 11월에도 입주여건은 약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미애 기자

## 조달청, 국민 체감 혁신조달 추진

추진상황 등 점검 연속 토론회

조달청이 혁신제품 지정·구매 등 혁신조달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내외 소통에 적극 나선다.

조달청은 혁신조달과 관련해 단기성과에서 만족하지 않고 추진상황 점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혁신조달 활성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에 들어간다.

지난 11일엔 담당부서에서 혁신조달 활성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전체 국·과장이 자유토론(브레인스토밍) 방식으로 참여하는 '청내 토론회'를 개최했다.

12일에는 혁신제품 선정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혁신제품 선정기업 토론회'를 진행했다. 11월 하순에는 혁신제품 수요자인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혁신제품 수요기관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달청은 지난 2년간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난 2일 조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공공조달의 새로운 체계를 구현한다는 사명감으로 혁신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지난 2년간의 혁신조달 추진 경험에 더해 이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심정으로 조달기업과 공공기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혁신조달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된 것을 체감할 때까지 답을 찾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0 R&D 협력사 테크데이'를 개최했다. /현대차 제공

## 현대·기아차, R&D 협력사 테크데이 성료

우수 신기술 부문 대상에 '대동도어' 수상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2020 R&D 협력사 테크데이(Tech Day)'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본부장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비롯한 연구소 관계자들과, 현대·기아자동차 협력회 회원석 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김득주 사무총장 등 29개 협력사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협력사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R&D 협력사 테크데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행사는 지난해 뛰어난 연구개발 성과를 낸 협력사에 대한 포상과 우수 신기술 사례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현대·기아차는 ▲우수 신기술 ▲내구품질개선상 ▲VE(Value Evaluation, 원가개선) 부문에 대해 3개 부문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에 공로가 큰 업체를 우수 협력사로 선정했다.

▲우수 신기술 부문에는 대상에 '대동도어'가, 우수상에는 '경신', '두원공조', '센트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내구품질개선상에는 최우수상에 '대철', 우수상에 '대한솔루션'이 선정됐으며 ▲VE혁신상에는 최우수상에 '에스엘', 우수상에 '한국단자'가 선정됐다.

/이나라 기자

## 사학연금, 비대면 화상 감사 실시

'스마트 감사 스테이션' 활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부산센터 종합감사를 '스마트 감사 스테이션'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감사 스테이션은 감사실과 일반부서 간에 화상회의 등으로 자료공유를 하는 비대면 화상 감사 시스템이다.

사학연금 감사실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나누본사 8층에 스마트 감사 스테이션을 임시 구축하고, 방문감사 예정이었던 부산센터 종합감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감사 적절사항에 대한 점검회의와 마감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했고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의 내용확인 등 음성회의로 진행했다.

또 감사자료 요구·검증역시 정보지원실과의 협업해 사학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00%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이번 부산센터 비대면 스마트 감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계기로 감사운영 전반에 적극 활용하고, 내년부터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 완전한 사무실 형태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배의숙 상임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직원들이 대면감사에 따른 피로감·공포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감사 스테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감사로 직원들의 피로 누적과 바이러스의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중기부, 중기 유공자 포상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8일까지 '2021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접수처에서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포상 분야는 모범 중소기업인,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자원우수단체 등 4개 부문이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유공자들은 내년 5월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훈·포장이나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중기부 장관 표창 등을 받는다.

중기부는 이번 유공자 선발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정도 등도 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 롯데마트, 즉석조리식품매장 정비

롯데마트는 매장 내 즉석조리 식품매장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하고, '제철 식재료'와 '건강'에 집중한 메뉴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 5일 잠실점 내 즉석조리 식품매장이 '차리다, 식탁'이라는 브랜드로 다시 문을 열었다.

이 매장에서 전형적인 마트의 즉석식품 메뉴에서 탈피해 샐러드, 죽, 수프 등도 판매한다. 전체적으로 건강식 비중이 기존 9%에서 27%로 늘어났다고 롯데마트는 소개했다.

잠실점에 이어 중계, 광교, 월드컵위점의 즉석조리 식품매장도 이달 중 '차리다, 식탁'으로 바꾸는 등 내년까지 전 지점의 매장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마트의 즉석식품이라고 하면 치킨이나 초밥 등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건강까지 생각한 메뉴로 차별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무형 '한·인도 포럼' 온라인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코트라, 인도상공회의소(ICC)와 공동으로 11월 '2020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인도 상의마양 잘란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유영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양국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대표를 비롯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민간 기업에서도 연사로 참가해 양국 산업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시청하는 가운데 인도 4개 주 정부 투자환경 및 진출 전략과 제약·의료, 기계·플랜트, 전기·전자, 식품 등 4개 산업별 협력방안 발표, 패널 토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경험을 공유하는 세션 순으로 진행됐다. 동시에 양국 60개 기업이 참가한 기업 간(B2B) 화상 상담 회도 개최됐다.

## aT, 김장비용 하향·안정세 유지

4인가족 29만9천원...전주보다 3.4% 하락

김장철을 앞두고 올해 김장비용은 하향·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인 가족,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재료 구입비용은 지난주 대비 3.4% 하락한 29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T가 지난 4월에 이어 11월 김장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13개 품목에 대해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이다.

품목별 가격을 살펴보면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와 생강이 하락했다. 생육이 부진한 쪽파와 아직 출하량이 많지 않은 것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주재료인 배추·무가 하락하고,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채소류가 상승하여 전체 김장비용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쇼핑몰, 친환경전문점, 로컬푸드 직매장 등 약 3,500여개 매장에서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정보 등 관련 자료는 aT 농산물 유통정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옥 기자

기술성, 경제성, 안정성이 우수한 하수처리시설공법  
환경엔지니어링 전문업체입니다.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하수처리시설공법, 중수도시설, 건설환경분야 선진국 사례 검증된 기술로  
맑고 깨끗한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 - 한성이앤씨(주)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수질환경전문 공사업

HAN SUNG  
ENVIRONMENTAL CONSTRUCTION

한성이앤씨 주식회사

본사 전남 담양군 대전면 나곡길 84 TEL. 061\_381-181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로 26 TEL. 062\_416-1819